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2호 / 2026년 08월 14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재발방지, 회사가 답을 해야 한다! - 산보위에서, 구체적 적정인력 실행 계획 확인할 터

오늘 오전 10시, 산보위가 진행된다. 산보위 파행 이후 생산 설비는 가동이 중단되었고, 재발방지 논의가 그대로 멈춰 서있다. 이제 사측이 답을 해야 한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산보위를 통해 확인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노동조합도 하루빨리 사고를 수습하고, 현장이 안전하게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빨리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터에서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급한 불만 끄고, 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씨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장은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를 중대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회사는 사망사고 직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방적인 안전조치 이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 오늘 산보위를 통해 노동조합이 확인할 것!

산보위가 처음 개최된 7/30일, 노동조합이 요구한 재발방지 6개 안건 중 4개 항목은 이미 실무에서 다뤄지고 합의된 내용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번 산보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노사관계에서 실무합의는 중요하다. 따라서 합의된 4가지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적정인력 확보와 직,계장의 생산 라인 투입 금지다. 무분별한 직,계장의 생산 투입을 방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이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 계장과 작업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할 때 비로소 안전은 시작된다. 노동조합은 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왜 노동조합은 적정인력을 요구하나?

회사는 항상 안전은 노사가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도 안전은 곧 생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안전은 구조적인 안전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안전조치만 하면 된다.’ ‘안전조치가 곧 안전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다.

□ 적정인력이 왜 중요한가?

연구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이 필요하듯 생산도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부족하니 안전관리가 약해지고, 여러 번의 사고 위험이 누적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몇 개월 후면 또다시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인원 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인력 충원을 중단한 지난 13년의 결과가 이번 중대재해를 만들었다. 노동조합은 또다시 우리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록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현장의 안전도, 생산과 납품 차질 우려도 발생하지 않는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생산과 납품 걱정을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인력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 풀고 갈 것은, 풀고 가야 한다!

이번 산보위에서 회사는 신규채용을 고민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족한 인원은 임시방편으로 메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없는 재발방지는 무의미하다. 무엇을 바꿀지, 언제 바꿀지,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또다시 “협이하자.” “논이하자.” 는 말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 일을 키우든, 해결하든 선택은 회사의 몫이다!

노동조합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는다면, 노동조합도 중대재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가 수립되지 않으면, 결국 정몽원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표이사 면담 자리에서 밝혔듯, 금속노조는 중대재해가 해결되지 않을 시 8/26 2차 총파업을 만도로 결정했다. 이제 선택은 회사 몫이다.